

하나님의 교회 리더십

성경말씀: 출18:1-27

평생 숙제: 교회, 교회는 '유기체'(Organism)이고 또 '조직체'(organization)이다.

유기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생명체를 말하며 조직체란 땅의 지역 교회를 말한다(즉 조직이다).

이 둘 중 하나만 강조하면 문제가 생긴다.

유기체: 생명체이므로 그냥 두면 저절로 교회가 굴러간다. 형제 교회, 소규모 교회, 가정 교회

조직체: 조직만 잘하면 세상의 기업들처럼 굴러간다. 현 시대 대부분의 교회, 특히 대형교회

어느 것이 옳으냐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계획과 인간의 의무와 책임, 여기서 구원이 나온다. <하나님의 교회 리더십>

구약의 이스라엘

BC 1491년 1월 14일 유월절(지금의 4월경) 이집트 탈출, 남자 장정만 60만, 적어도 200만

탈출 이후 이스라엘의 시험: 파라오 군대, 먹을 것(만나), 마실 것(반석의 물), 원수 아말렉

여기까지는 유기체로서 일함, 장로들 외에 특별 조직이 없음, 장로는 부족들의 대표(출3:16; 12:21)

이제 탈출 뒤 두 달이 조금 못 되었을 때에 유기체의 리더십 문제가 생긴

1-7: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 미디안의 제사장(1절), 이집트 탈출 뒤 시내 산에 이르기 전에 모세는 자기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장인에게 보내어 소식을 전하게 하였고 장인이 같이 옴

8-12: 이드로의 하나님 찬양,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창14), 이드로, 옴은 이방인,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를 구원하신다. 11절 해석

13-16: 모세의 문제, 아내와 아이들과 장인이 왔으면 한 일 주일 쉬어야 하는데 일이 산적해서 13절에 보니 모세는 바로 '다음 날' 일에 몰두하기 시작함

문제의 원인: 모세가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재판함, 거의 끝이 없는 일

목사나 교회 리더들이 이 점을 직시하고 일에 채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세는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법규와 법들을 알려줌(16), 그러나 본인은 먹지 못함, 즉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본인이 먹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없음, 경건함과 거룩함 추구 불가

17-18: 이드로의 조언, 네가 하는 일이 선하지 않다(17), (1)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음
(2) 또 너와 백성이 둘 다 지칠 것이요, (3) 이 일이 너무 무거워 너 홀로 할 수 없다. (4) 목사에게만 와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

19-23: 조언, 지도자가 해야 할 일 두 가지로 구분

1. 하나님 쪽을 향해 백성의 사정들을 가져가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규례와 법을 가르쳐라.

즉 기도와 말씀 선포

2. 백성의 처리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자들을 선정하여 10, 50, 100, 1000명의 치리자, 쉬운 것들은 그들이 처리하게 하고 어려운 것만 네게 가져오게 하라. 그러면 일이 쉬우리라(22절).

3. 드디어 조직체로서의 회중이 등장하기 시작함, 유기체만으로는 문제를 풀지 못함

이드로의 경영 기법이 들어옴

4. 조직체 운영에 대한 이드들이 조언은 합당할까? 하지 않을까?

이드로가 교리와 율법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그것은 월권행위, 수용 불가

그러나 이드로는 원로로서 인생의 긴 경륜 속에서 터득한 상식 수준의 원리를 제시함

교회 안에서도 이것들을 구분해야 한다.

신약의 교회

AD 30년경 오순절 날(대략 6월 초 즈음)에 교회가 형성됨, 유기체

3,000명(행2:41), 5,000명(행4:4), 순식간에 거의 2만 명 정도의 사이즈가 됨

드디어 유기체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함, 행4:32 초기 유대인 교회, 주님의 재림 사모, 모든 것을 팔아서 바침, 관리가 허술함,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6장에 보면 문제가 회중 가운데 크게 생김(6:1), 파당이 생기고 배급 문제가 생김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의 처방(6:2-4): 유기체만으로는 교회 경영이 안 된다. 이제 조직체를 꾸려야
 한다. 우리가 빵 배급이나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선한 자들을 찾아와라. 우리는 그들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

신약과 구약의 동일한 원리

처음에 교회가 작을 때에는 목사가 홀로 유기체의 교회를 관리하며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정 사이즈가 넘어가면 유기체만으로는 즉 법과 질서 없이 교회 유지 불가능
 성도들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기에 반드시 법과 질서가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대충 대충 유기체 교회로 운영함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즉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집사, 섬김 부서, 지역 모임, 교사 등으로 나누어서 조직체로서의 최소 틀을 갖추었다.

이것을 두고 교회와 목사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교회 대적하는
 일, 조직은 성도들을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섬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이 미워하면 혼동이 생김(창11장의 바벨탑 사건),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 바울의 확증(고전14:33, 40)

누가 리더가 되는가?

구약: 능력 있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

신약: 정직하다는 평판,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자

1.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자, 즉 교리와 말씀에 정통하고 타인의 눈에 그렇게 비쳐야
 한다. 그러므로 리더들은 성경 말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2. 인간의 상식과 사회적 통념 안에서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 “목사는 반드시
 사회생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한다.
 부목사, 사역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No!
3. 모든 리더는 목사의 지도력에 순종해야 한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같은 방향으로 배를 이끌려고 해야
 한다. 조언과 충언은 가능하지만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문제가 생긴다. 왜 그런가? 완벽한 목사는
 없기 때문이다. 설교, 전도, 저술, 심방, 상담, 음악 등을 모두 잘하는 목사는 이 세상에 없다.
4. 목사도 사람인지라 여기 오신 분들도 대체적인 틀이 맞으면 다른 것이 부족해도 함께해야 한다. 모두
 모세가 되면 배가 산으로 향한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동일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리더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격이 급하다. 잔정이 없다. 사랑이 없다. 무엇으로 목사를 판단하는가? 그의
 과거와 그가 이룬 일을 보라. 킹제임스 성경, 교회 확장 확고히 자리 잡음, 겸손하기만 하면 된다.
5. 탐욕이 없는 자: 자리다툼 안 하는 자, 과거의 경력, 학력, 재산 등을 내세우면 이 교회에서는 영원히
 리더가 되지 못한다. 리더는 사람이 따라야 한다. 목사가 시켜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막10:45를
 기억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기면 리더가 된다. 오래 다녔다고 되지 않는다.
6. 나는 편파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 능력 있는 자들,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자들을 세운다.

조직체 구성 이후의 변화

조직체로서의 회중이 구성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드디어 출20장에서 십계명을 받는다. 하나의 질서 있는
 민족으로 태어나 메시아를 배출하게 됨

신약 교회: 조직체가 구성된 이후에 비로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됨(행13:1-2), 교회로서의 역할 감당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2012년 5월부터 유튜브 시작, 첫 달 조회수 2,100건, 1년 반이 지난 지금 지난 한 달 조회수
 66,000+83,000(15만 건), 1년 반 사이 70배 증가, 두 개의 사이트, 서문오디도 6만 건
한 달 평균 21만건, 하루에 설교/강해 7,000건 접속, 이제 이 추세로 가면 킹제임스 성경과 독립침례교회
 가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도지, CD 등을 들고 개인전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바른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한다.